

# 영암군, 월동 왕우렁이 일제수거 및 시연회 개최

### 영암군우렁이생산자연합회·농업인·공무원등과 4톤 수거 저비용 구입 가능·제조 능력 좋아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영암군은 지난 7월31일까지 관내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지속적인 유지, 확대 및 왕우렁이의 자연생태계 교란방지를 위해 왕우렁이 집종 수거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지난달 29일 영암군우렁이생산자연합회, 농업인, 공무원 등과 협력하여 왕우렁이가 투입된 농지와 용·배수로 등에서 직접 우렁이 및 우렁이알 약 4톤을 수거했다.

왕우렁이는 공익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교란 위험성이 있는 종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군은 왕우렁이 유출 방지를 위해 차단망 설치 및 왕우렁이 알 수거를 철저히 할 것을 농

가에 당부하고 있다. 또한, 장마철 전후와 벼 수확 후 월동 방지를 위해 농가에서 왕우렁이를 수시로 수거하도록 하고, 깊이갈이나 동계작물 재배를 의무화하고 있다.

왕우렁이는 저비용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제조 능력이 좋아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수거를 소홀히 하면 월동을 한 왕우렁이가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월동 왕우렁이로 인한 피해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벼 재배농가에서는 왕우렁이가 아닌 이외의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우렁이 농법을 지속적·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만큼이나 연중 수시 우렁이 수거, 수확 후 깊이갈이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군에서도 왕우렁이 일제 수거기간 운영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방안 홍보를 통해 생태계 교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영광군, 2022년 원전주변 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영광군은 한빛원전 주변지역인 백수읍, 흥농읍, 범성면에 거주하는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학금 지원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가 한빛원전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적우수자, 예체능특기학생 및 취약계층(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24일까지로 24일 간이며, 관외 학교 재학생 및 관내 취약계층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관내 학교 성적우수자 및 예체능특기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신청해야 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초·중등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이며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영광=서희권 기자



## 신안군, 수학여행지 핫플레이스로 급부상

### 대한교육여행협회 팸투어 및 수학여행상품 개발

신안군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수학여행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에 앞서 대한여행협회(KATA)산하 교육여행사 분과 대표 및 임원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2일간 팸투어를 실시했다.

신안군은 퍼펙션, 1004뮤지엄파크, 중도 태평염전, 요트클럽, 해양 생태계 탄소 중립 실천교육의 장소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갯벌 자연자원 및 우수관광자원, 숙박, 관광정책 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대한여행교육협회에서는 신안군 수학여행 표준을 작성해 회원사에 배포하였으며, 오는 9월부터는 VIP 상품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 기자

또한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여행업체(수학여행)에 대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학여행 유치 여행사의 지원조건은 1박 30인 이상 1인당 1만원, 2박은 30인 이상 1인당 2만원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서울, 경기 수도권의 연인원 20여만명의 중등학교 수학여행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교육여행협회의 팸투어와 상품개발 및 수학여행 운영으로 숙박 및 식당 등의 주중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이 관내 관광 활성화와 수용태세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목포시, 삼학도공원 주차장 재개방

### 주차 불편 민원 해소

목포시가 삼학도 공원 주차장을 재개방했다.

시는 어민을 비롯해 삼학도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한국섬진흥원과 인접한 삼학도공원 주차장 내 차량진입 금지시설을 철거했다.

시는 대형차량 주차로 인한 매연 유입을 이유로 삼학도공원 주차장 부지(산정동

1428-3) 일부에 대한 주차 자제를 한국섬진흥원이 요청함에 따라 지난해 차량진입 금지 차단줄을 설치했다.

하지만 어민과 관광객 등이 주차 불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일각에서 주차금지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함에 따라 시는 한국섬진흥원에 삼학도공원 주차장 개방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75m 가량의 차단줄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재개방하기로 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함평군-한국산업단지공단,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업무협약...손 맞잡다

함평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7월 31일 군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지난 28일 함평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간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이뤄지게 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2년부터 3년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농공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100㎡ 규모로 편의점, 체육시설, 쉼터하우스 등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립사업을 통해 학교농공단지가 다시 한 번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무안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본격 시행

무안군은 지난 7월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TF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복지자원 등을 고려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발굴해 지역특성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하고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방향과 추진계획 설명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질의응답 시간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분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앞으로 전문가 FGI(심층면접)와 토론방식 집단면접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체계를 구성하고 무안군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민관의 의견을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4개년의 복지정책 이정표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민관이 협력해 복지자원을 조직화하고 지역사회보장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